



BILZARD  
ENTERTAINMENT

#3/5

# OVERWATCH®

새로운 피



RAY FAWKES  
IRENE KOH





# 새로운 피

#3/5



캐서디는 파라를 오버워치에 영입하기 위해 헬릭스 기지에서 만나지만, 지난날의 감정 때문에 파라는 망설입니다. 어머니와의 다소 복잡한 재회 이후 파라는 영웅으로서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미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그동안 캐서디는 또 하나의 가공할 만한 영웅에게 눈을 돌립니다.

글 *RAY FAWKES* 번역 *BLIZZARD LOCALIZATION* 그림 *IRENE KOH*  
채색 *MARIEL RODRIGUEZ* 식자 *DERON BENNETT* 표지 *IRENE KOH*

## 다크 호스 코믹스

대표 및 발행인 *MIKE RICHARDSON* 선임 편집자 *PHILIP R. SIMON* 부 편집자 *JUDY KHUU*  
보조 편집자 *ROSE WEITZ* 디자이너 *PATRICK SATTERFIELD* 디지털 아트 테크니션 *ALLYSON HALLER*

##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편집 팀

수석 편집자 *CHLOE FRABONI* 프로듀서 *FELICE HUANG, BRIANNE MESSINA, DEREK ROSENBERG*  
소비자 제품 디렉터 *BYRON PARNELL* 북 아트 & 디자인 매니저 *BETSY PETERSCHMIDT*  
크리에이티브 자문 *MADI BUCKINGHAM, JEFF CHAMBERLAIN, MICHAEL CHU, SEAN COPELAND, JEFF KAPLAN, AARON KELLER, GEORGE KRSTIC, ARNOLD TSANG, ALYSSA WONG*



Blizzard.com

도움 주신 분 *DAVID SEEHOLZER*

DarkHorse.com Facebook.com/DarkHorseComics Twitter.com/DarkHorseComics

오버워치: 새로운 피 #3

OVERWATCH® © 2022 Blizzard Entertainment, Inc. 모든 권리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에 있습니다. 미국 및 다른 국가에서 Overwatch는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이고 Blizzard Entertainment는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Dark Horse Comics®와 Dark Horse 로고는 여러 카테고리 및 국가에서 등록된 Dark Horse Comics LLC의 상표입니다. 모든 권리는 Dark Horse Comics LLC에 있습니다. Dark Horse Comics LLC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본 발행물의 어떤 부분도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본 발행물에 등장하는 이름, 인물, 장소 및 사건은 저자의 상상력의 산물이거나 허구로서 사용됩니다. 풍자의 의도도 없는 실존 인물(생존 여부와 무관), 사건, 기관, 장소와 유사성은 전적으로 우연입니다.

#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이 남자는 열차를 세 번 갈아탔다.  
소피아에서는 역에서 시내로 이동해  
인파 속을 누빈 후,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열차를 탔다.



일을 제대로  
하는 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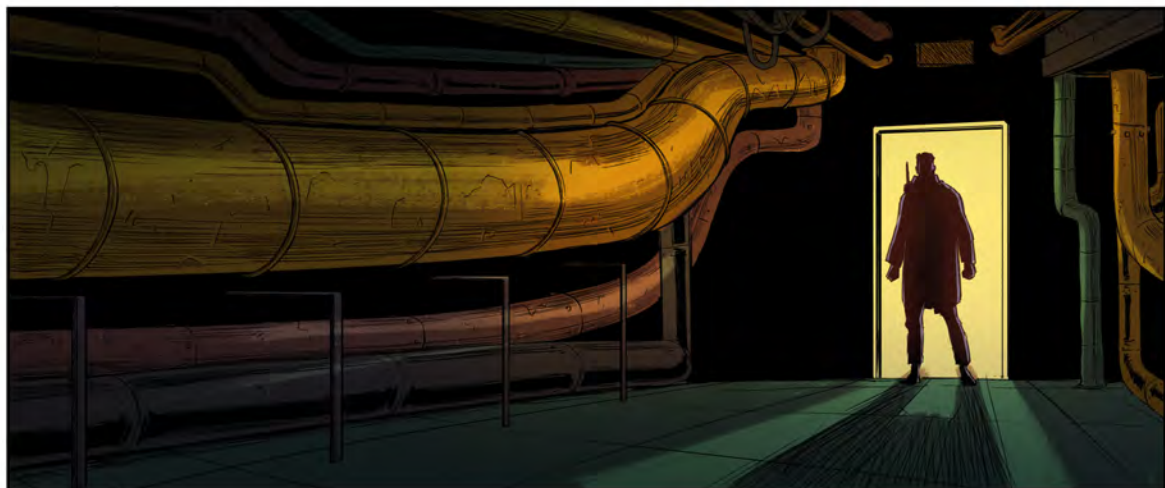
처음에는 그저 만전을 기하는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피해 다니는  
품새가 범상치 않다. 지레 조심하는  
것과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것의  
차이는 분간할 수 있다.



내가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다.















와지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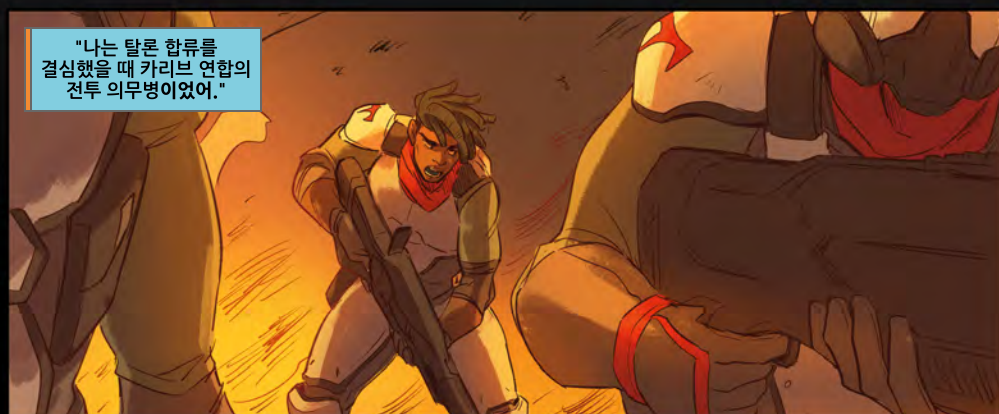




나는 장 바티스트  
오귀스탱이다.

탈론에게 훈련을  
받긴 했지만  
탈론이 아니야.

이제는  
아니라고.



"나는 탈론 합류를  
결심했을 때 카리브 연합의  
전투 의무병이었어."



"처음에 받은 임무들은 내  
예상대로였다. 단순한 용병 일로,  
대부분이 구조 임무였지."



그런데 나는  
너무 의심이  
없었지.

시간이 지나니  
분명해지더군. 탈론의  
목표는 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들은 분쟁을 만들어  
내고, 거기서 이익을  
얻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탈론을 떠났고, 그 후로  
계속 놈들에게 쫓기고  
있어.



"나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했어."



"한번은 놈들에게 거의 잡힐 뻔했어."

"하지만 용케 살아남았지."



"그리고 놈들이 쫓는 게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지. 놈들에겐 명단이 있었어. 요원들의 호출명과 마지막 목격 장소가 적혀 있었지."

"오버워치 요원인 것이 확실하거나 요원일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 말이야."



"양젤라 치글러, 일명 메르시가 그 명단에 있었지. 나는 메르시가 카이로에서 의료 구호 임무를 수행 중인 것을 알고,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만나서 경고해 주려고 했지."

"내가 도착했을 때 메르시는 이미 떠난 후더군. 하지만 거긴 아직 문제가 있었어..."



당신이 있었거든.

그 명단에는 당신도 있어. 당신과 다른 요원들...











우지끈











놈들이 어디로  
갔지?



이쪽으로  
왔다!

배신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지.

히,  
재밌어졌군.



저기 있는  
열차에 타면  
되겠는데.

그러려면  
저 탈론 요원들과  
경비 드론을  
따돌려야 해.

나한테  
말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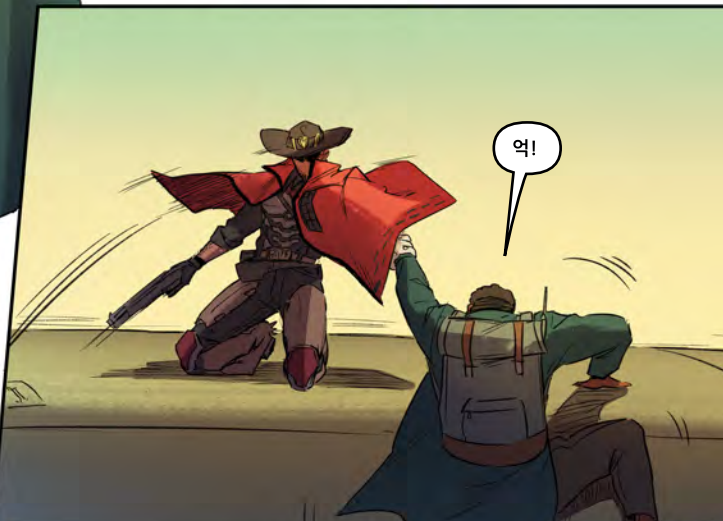




















거기서 최후의  
저항을 하다니,  
용감하던데.

그게 정말  
저항이었다면  
말이지.

허, 더 불리한  
상황도 겪어  
봤어.



네가 영리한 탈론  
요원이라면 전투 중에 내  
목숨을 구하는 상황을  
연출해서 나한테 빚을  
지우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탈론 요원이 아닌란  
말이야. 안 영리한단  
말이야?



난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그동안 넌 납작 엎드려서  
내가 연락할 때까지  
놈들을 피해 다녀.

사람을 시켜서 널  
조사하라고 할 테니.  
그리고 네가  
진심이라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그저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싶을  
뿐이야.



오버워치는  
세상을 위해  
옳은 일을 했어.





내가 조금이라도...  
오버워치에 힘을  
보탬 수 있다면...



준비는 이미  
끝나 있을  
거야.





몇 시간 후...

곧 러시아  
국경입니다...







## 다음 편:

---

캐서디는 다음 영웅을 오버워치에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 나갑니다. 그에 따라 아주 위험한 전장에 발을 들이게 되었죠. 옴닉 공격과 무력한 마을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캐서디. 우선은 새롭게 영입하려는 신참에게 오버워치의 대의는 싸워서 지켜낼 가치가 있음을 설득해야 합니다.